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글로벌 현장학습’

8주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인턴십 통해 취업 역량 강화

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교장 박유현)는 3학년 학생 10명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해 지난달 20일(토)~9월 13일(금)까지 8주 동안, 미국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4개의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현장학습’은 대구 시교육청의 직업계고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생들에게 국제적인 업무 경험과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전세계 SW 개발, IT산업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로 10여 명의 현장학습 학생을 파견하고 있다.

학생들은 XL&AI Inc, Luckmon Inc, Interactor Inc, Bizben Inc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에서 인턴십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며, 실제 개발 환경에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지 구글 개발자로 근무하는 Kevin Lim 및 현지 스타트업 대표의 기업가 정신 특강 등

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주말에는 개발자 커뮤니티인 Hacker Dojo가 주최하는 해커톤에 참가해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ACF가 주관하는 코딩스쿨에서 현지 교민 자녀들을 대상으로 Teacher Assistant로서 봉사활동을 하며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세계 최대 IT 기업의 중심지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글로벌 IT 생태계를 직접 경험한다.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현지 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지난해 XL&AI 학생이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로 취업에 성공했다. 이는 글로벌 프로그램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학생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있다.

박유현 교장은 “글로벌 인턴십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얻은 경험과 네트워크가 미래



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글로벌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우리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끌어갈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등학교〉



20년만에 모교 찾은 외국인 계명대 졸업생들 발전기금 기탁

계명대학교(총장 신일희)는 창립 125주년을 맞아 외국인 졸업생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달 24일(수)~27일(토)까지 3박 4일간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온 48명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베트남 동문회에서는 이번 방문을 통해 발전기금 145만 원을 모교에 전달했다. 〈자료제공:계명대학교〉

<도라에몽>, <파워레인저 킹덤포스>, <알로스와 친구들> 가족과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채널

디지털 **185번** 가족과 함께 ANIONE Animation

ANIBOX 디지털 **182번** 한일 동시

<원피스> 부터 <블루 아카이브>까지! 한일동시 애니메이션을 가장 빠르게 볼 수 있는 채널!